

2018년 4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8.4.26.(목) 오전 10:30~11:30

■ 주요 회의 내용

▲ 보도의 객관성, 공정성, 심층성 확보

- 기업들의 문제점 보도 관련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4.7 오전 출발 640 프로그램에서 CEO 풍향계 코너는 "기업들의 매출 부진 또는 감소에도 불구하고, CEO 연봉 상승기업" 보도에서 일부 기업들을 거명하면서 보도를 진행하였는데, 거론된 기업들이 예시적인 것인지 또는 그 기업들만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만일 예시적인 상황이었다면 보다 체계적인 분석 내용 중에 가장 문제가 심각한 X개의 기업을 예시한다든지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오준 위원장)
- 정상회담 결과와 연계, 적극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보도에 주력할 것을 요망함. 남북관계, 북핵 문제는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탐사보도 필요, 전문가 출연으로 땀질할 사안이 아님. 기존 남북관계의 고정된 프레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함. 단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한 전문가 출연 재검토가 필요함(권영후 부위원장)
- 댓글 공방 내용에서 정쟁공방에 초점을 두고 지방선거와 연결하는 보도에 중점을 둬. 사실 확인과 사건의 본질을 밝히는데 소홀해 뉴스가 왜곡되어 시청자에게 혼란 초래할 가능성이 큼(권영후 부위원장)
- 드루킹의 여론 조작 방법, 매크로 관련 상세한 설명이 부족함. 매크로 알고리즘, 여론 조작행위, 공론장을 지켜낼 방안 등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함. 봇기사 작성, 기차표 공연표 예매 등도 매크로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여론 조작행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상세히 보도할 필요가 있음(권영후 부위원장)
- 다산 아파트 집단이기주의 문제를 단순 사실전달에만 국한하는 것보다는 언론에서 서울도심 아파트와의 재산가치 차이 등 심층적으로 보도해보면 좋을 것(권영후 부위원장)
- 21일 9시 특별기획 한반도의 봄은 전문가들이 출연하여 전쟁 종결의 유형, 평화협정, 평화체제, 평화정착 등에 관하여 심층 토론을 방영한 것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평화협정과 관련된 논의들이 지나치게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지나치게 편향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중심을 잡아주는 연합 티비뉴스의 모토에도 부합하지 않음. 오히려 공익적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바람직함(최신용 위원)
- 이슈,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good news" - 스트레스와 bad news에 찌든 시

청자들에게 밝은 소식, 희망을 주는 소식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bad news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세상 아닌가함(하규섭 위원)

- 남북정상회담 내용에서 자칫 시청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기대감을 주는, 또는 현실감이 부족해 보이는 것들도 있음. 남북이산가족 상봉은 항상 나오고 여러 차례 실현된 사안이지만, 동서해 직항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도 많은 것 같음(김석민 위원)
- 지난 21일 토요일 뉴스는 북한이 핵중단을 천명한 것을 주요 뉴스로 다루었음. 북한 동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경계감을 갖는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임. 뉴스의 이면을 치고 들어가 북한의 의도와 노림수 등을 함께 곁들인다면 보다 균형 잡힌 뉴스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있음(이경상 위원)
- 미세먼지 등 다른 이슈도 마찬가지로.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뉴스를 전달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시청자들이 관심 가질 내용을 발굴하여 두었다가 심층 분석하듯 함께 보도하면 뉴스의 품격이 높아질 것임(이경상 위원)

▲ 반복된 보도 지양하고 보도의 역할 충실해야

-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화면에 북한 관련 영상자료가 자주 나오고 있음. 뉴스 내용과 부합하거나 관련되는 영상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뉴스 내용과 별 관련이 없는 북한의 모습을 갑자기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김석민 위원)
- 매시간 반복되는 뉴스는 반복 간격을 조절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하규섭 위원)
- 트럼프의 북한 관련 발언을 보도하면서 몇 분도 안 되어 트럼프의 해당 발언을 또 인용함. 여러 곳의 자료를 활용해 중요뉴스를 다양하게 분석해 내보낼 때, 같은 내용을 중복해 내보내는 실수가 없었으면 함(이경상 위원)
- 네이버의 독점적 뉴스 서비스 구조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함. 국민의 77%가 포털로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심층적 보도가 없음. 네이버와 여론 조작 기술의 연계, 미디어 플랫폼 구조 문제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권영후 부위원장)
- 5월 6월은 지역별 축제기간임. 지역에서 벌이는 지역축제는 보통 지역 언론에서만 다루고 있는데 연합뉴스티브이에서 심층보도해주면 좋겠음(권영후 부위원장)
- 4.27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의 분수령이 될 회담임. 지난해 이맘 때 한반도를 휩싸고 있던 전쟁위기와 비교하면 파천황의 변화임. 그러면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연출할 이 회담을 연합뉴스TV는 회담에 이르기까지 진전 상황을 어떻게 전했으며, 그 의미를 얼마나 깊이 전하고, 전망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을까. 안타깝게도 이런 물음에 긍정적인 답변은 나오기 힘들어

보임. 연합뉴스TV는 10일 전부터 화면 상단에 역사적인 정상회담의 개최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음(경쟁사도 마찬가지). 회담 관련한 기사도 뉴스 프로그램마다 한두 꼭지씩 내보냈음. 공영 뉴스티브이로서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뉴스 대부분은 속보였다. 비중에서 보면 정치 브로커 드루킹 사건이나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사건, 한국 지엠 사태 등 다른 현안과 다르지 않음. 관련 당국의 발표, 여야 정치권의 반응, 상식적인 대담 정도임. 연합뉴스 티브이의 뉴스에서 정상회담은 여러 현안 가운데 하나로만 존재함. 남북관계는 국민적 합의와 지원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 대통령이나 일부 정치권 혹은 사회단체의 선구적인 노력이나 북한의 의미 있는 태도 변화가 있더라도, 국민들이 외면한다면 일회성의 정치적 혹은 사회적 캠페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 이런 상황에서 공영 뉴스방송이라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이번 회담이 성공적 결실을 맺도록 견인차 구실을 해야 마땅함. 내실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전망을 제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야 하는 것임. 우리의 목을 졸랐던 핵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키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 나아가 남북한의 상생과 발전은 이런 국민적 합의 위에서만 가능하다. 연합뉴스TV가 최근 10일간 보도한 뉴스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들만 추려보면 19일 '생중계 어떤 장면을 연출할까' 22일 시민의 바람 '헤어진 가족들의 만남 다시 이뤄질까', 23일 '정상회담 준비상황' 25일 '되돌아본 1,2차 남북 정상회담' 등이다. 다른 여러 대담, 특집이 있긴 하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없었음. 오히려 '김정은 경호 어떻게' 프로그램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 북의 부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25일의 시민 반응을 보여주는 꼭지에선 평화체제가 정착되기를 염원하는 시민과, 회담을 선거 앞두고 벌이는 정치쇼로 보는 시민의 시각을 나란히 보여줬음. 과연 그 정도로밖에 평가받을 수 없는 것이며, 국민의 시각이 그러한 것일까? 정쟁만 일삼는 여야 정치권의 입장을 기계적으로 나란히 세우는 보도의 연장이다. 22일 보도한 '여당, 정상회담에 힘 모으자며 드루킹 진화에 총력' 보도는 착잡하기까지 했음. 남북정상회담은 1년 전 핵전쟁 위기 때처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1년 전 세계 각국은 한반도가 핵전쟁으로 폭삭 주저앉기라도 하듯이 주목했다면, 지금은 남북한이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의 화약고를 걷어낼 것인지 주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국 정부의 지지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음. 한반도 리스크의 해소 가능성에 따라 외국의 자금이 밀려오고 있음. 국내 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의지를 결집할 수 있는 기사는 널려 있음. 다른 방송들을 선도할 수 기사들임. 어떤 방송이나 다 보도하는 뉴스를 '매시간 되풀이하자'고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어 공영 뉴스전문채널을 세우고 유지하는 건 아니다. 공영 뉴스방송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했으면 함. 회담 이후 달라진 모습을 기대함. 정상회담 이후 상황은 더 중요함. 연합뉴스와 함께 연합뉴스TV가 정상회담 주관사로 선정된 것

을 환영하고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위기의 먹구름이 완전히 걷힐 때까지 연합뉴스TV가 한반도 평화 정착의 주관사로 기능하기를 바람(곽병찬 위원)

- 이달에 정치적으로 가장 뜨거운 뉴스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윤리성 논란과 이른바 '드루킹'의 댓글 조작 논란임. 두 기사 모두에서 연합뉴스TV가 적극적으로 사안을 다루고 의혹의 진위를 가리려는 노력이 부족해 아쉬웠음. 먼저 김기식 관련보도는 5일자 조선일보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유럽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6일자에도 일부 언론들이 후속보도를 이어갔다. 이런 의혹제기 기사는 성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사실여부를 충실히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이 우선임. 그래서 충분한 취재를 거쳐 7일부터 이 보도를 시작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유럽출장을 놓아두고 우리은행 해외분점 개점 행사 출장만 다룬 것은 이상했음. 방문기간이나 예산, 비서동행 등에서 두 행사는 차이가 많았음. 이후 보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혹의 사실성 여부를 확인, 검증하기보다는 여야의 정치적 공방 차원에서 양쪽 주장을 함께 소개하는 보도가 이어졌음. 연합뉴스TV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깊이 다룬 것은 10일 뉴스1번지에서 패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임.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댓글 관련 의혹을 다루는 보도 양상도 비슷했음.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14일 다른 방송사들은 저녁뉴스부터 이 사건을 크게 다루고, 파주에 있는 출판사 현장 취재 보도가 나오기도 했음. 그러나 연합뉴스TV에서는 15일 뉴스에서 여야 공방으로 잠시 내용이 언급되고 김경수 의원의 부인 기자회견 기사만 별도로 나갔다. 이후에도 다른 언론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적 보도하는 상황에서 연합뉴스TV 보도는 주로 정치권의 공방으로만 다루는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 시청자들은 제기된 의혹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위법적인 행위인지가 궁금했음. 그런데도 단순히 양쪽 주장만 나열하는데 그친다면 언론으로서 기기본적 사실 확인 의무조차 외면하는 것임. 제한된 취재인력 등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사안은 인력보다 자세가 문제라고 생각함(배정근 위원)

▲ 보도의 차별화 전략

- 보도채널의 특성상 정보를 제공하고 반복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밋밋하고 지루함. 연예 프로그램과 같이 다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튀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을 것(이우영 위원)
- 지나치게 기계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함.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사회적인 논란이 있을 때 모두가 같은 의견만이 아니고 편향된 의견도 있을 수도 있는데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듦. 논쟁을 붙여 사회적인 여론을 모아보는 면이 있을 것이고, 오해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해시켜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줄 수도 있을 것임. 뉴스해설과 해석 차원이 있어야 하고 깊이 있는 논쟁으로 사회적 여론과 발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고민 해보아야하고 언론사로서의 입장이 있으면 좋을 것(이우영 위원)

- 보도의 레벨을 다르게 해보면 좋을 것. 이슈를 다룰 때 이슈와 관련된 사람 냄새나는 인간적 차원에서 일상적인 내용을 함께 다뤄서 차별화를 시켜 보는 것도 좋음(이우영 위원)
- 비즈& 과 같은 코너처럼 일반 보통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상생활 정보를 취합하여 전해주는 코너가 있으면 좋겠음. 즉 뉴스뿐만 아니라 생활정보도 요약 하여 전해주는 TV 채널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음(하규섭 위원)
- 연합뉴스TV는 경쟁사와 함께 대한민국 양대 보도전문 채널이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합리적 중립성'이라고 보임. 현재까지 연합뉴스TV에서 보여주고 있는 방송 내용이나 편성 등은 그와 같은 방송국의 지향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함.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방송 기조에 '재미', '독창적 시각 제시'라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임. 이는 전적으로 저의 개인 소견입니다만, 편성 표상 각 프로그램의 성격이 비슷비슷하고, 차별성이 없는데다가 기계적 중립성을 강조하다보니 매번 같은 내용의 말을 비슷비슷한 투로 방송하는 듯 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음. 따라서, 각 프로그램별 차별성을 확보하고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에서 정치나 사회 등의 굵직한 이슈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시청자를 잡아끄는 '재미'가 가미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프로그램을 만드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 것인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조금만 더 '연합뉴스 TV'다운 특징을 갖춘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아울러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함(노영희 위원)

▲ 자료화면, 자막, 표현 등 개선 필요

- 광고시 뉴스 속보가 안보임, 노출방안 검토가 필요함. 타사는 오른쪽 위에 속보가 계속 노출되고 있음(권영후 부위원장)
-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수도권 후보 확정사실을 보도하면서 화면에는 확정된 후보사진만 송출함. 2위, 3위와의 표차를 궁금해 하는 시청자들이 적지 않았을 것임. 득표율을 그래픽으로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사전에 예상되던 뉴스라 미리 그래픽화면을 준비해 놓고 숫자만 채우면 됐을 것임(이경상 위원)
- 방송보도는 흔히 기사보다 영상이 중요하다고 말함. 생생한 현장영상을 제공하고, 보도내용과 관련 영상을 적절하게 조합해 시청자에게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방송뉴스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의미임. 그런 점에서 올 들어 전국적으로 황사가 가장 심했다는 15일 황사 보도는 내용은 좋았지만 영상이 아쉬웠음. 기상뉴스는 연합뉴스TV가 가장 잘하는 분야라고 생각함. 이날 보도도 그랬음. 다만 일요일이었던 이날 황사는 남부지역에서 특히 심각했음. 이날 먼지농도 최곳값이 세제곱미터당 광주 523 마이크로그램, 제주 459 마이크로그램,

부산 400 마이크로그램이었음. 그런데도 영상화면은 서울시내 황사 모습뿐이었다. 보도를 보면서 과연 황사가 가장 심한 광주 시내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지만 서울 영상만 반복됐음. 영상의 내용과 출처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정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함. 방송뉴스는 관련 자료화면을 많이 쓰게 되는데 자료화면임을 밝히거나 자료의 소스를 공개하는 일은 거의 드뭄. 이달 들어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중요뉴스로 부각하면서 미사일 발사 사진, 폭격 사진 등 관련영상이 많이 다뤄졌음. 그런데 그 영상이 이번 사태의 영상인지, 과거 자료영상인지 전혀 설명이 없었음. 어떤 영상은 과거 1,2차 이라크전 때 영상으로 보였지만 설명이 없어서 알 수 없었음. 취재보도 원칙 차원에서나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영상자료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많아졌으면 좋겠음 (배정근 위원)

- 화면 하단 자막 뉴스 중 불명확한 문구. 자막 뉴스 중 일부는 인용부호를 사용하면서 누구를 인용하는지 표기하지 않는 등 시청자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4.12 오전 8시 라이브투데이의 경우 “불탄, 중국과의 무력충돌도 불사한다는 입장 지녀”라는 내용이 인용부호 속에 들어 있는데, 누구를 인용한 것인지 나타나지 않았고, 무슨 문제로 ‘무력충돌도 불사한다’는 뜻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음. 설사 문장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자막 뉴스의 불명확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오준 위원장)
- 4일 보도된 대학교수들의 논문 저자에 입시에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자녀들을 공동 저자로 끼워 넣은 부정논문 보도시 자료화면이 보도에서 거명된 교수들의 소속 학교와 관계없는 대학의 교명과 상징을 보여 줘서 시청자들이 화면에 나타나는 대학의 교수들이 연루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자료화면 방영시 단순하게 자료화면이라고 표기하는 것 보다는 보도 내용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자막을 넣어 주면 좋을 것임(최신용 위원)
- 표기상의 문제가 계속 발견됨. 김정은 6돌로 표기하는 것이 어법에 맞는지? 표현의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는 글자 수를 되도록 줄이면 좋겠지만 언어 교육적 효과도 있는데 문자 입력에 더욱 신경써야할 것임(최신용 위원)
- 24일 뉴스에서 국세청이 증여세 탈루 등 뉴스 브리핑 기사를 방영하면서 “금수저”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한 느낌이 듦. 언론에서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부정적 느낌의 어휘를 양산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김석민 위원)
- 대한항공 조 전무 뉴스를 하면서 조현아 사건 자료도 같이 보여주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 보도하는 것은 아닌지(김석민 위원)
- 스크롤 뉴스를 단어 위주로 짧게 구성하다 보니까 사람 이름만 나오는 경우가 많음. “김동연, UAE 경제부 장관과 ~” 같이 하면 많은 시청자들은 김동연이 누군지 모르므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 으로 표기하면 좋을 것임(김석민 위원)

▲ 프로그램 편성, 출연자 및 긍정적 평가

- '티비와 비평' 같은 프로의 방송 시간이 너무 늦은 심야(밤0시40분)라 시청층이 두텁지 않을 것 같음. '옴부즈맨'같은 프로를 지나치게 심야로 편성하기 보다는 11시 뉴스가 끝난 시간대에 배치하면 어떨까함(최신용 위원)
- 젊은 출연진으로 교체가 눈에 띄어. 아직도 남성 편중현상이 심함. 여성출연진 발굴 보완이 필요함(권영후 부위원장)
- 남북정상회담, 북핵 폐기 관련 내용.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핵 폐기에 대한 단계별 설명 등 정확한 내용 소개가 돋보임(권영후 부위원장)
- 정상회담 개최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의 기대 및 예상되는 정책 등이 많이 소개되고 전문가의 설명을 포함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음. 전문가의 인터뷰 등 내용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됨(김석민 위원)

(끝).